

2023. Summer. 434

어게인 경북

GYEONGSANGBUK-DO MAGAZINE



*Adieu Gunwi,
Dream of prosperity*



QR코드로 더 생생하게 즐기는 2023 어게인경북

군위 화산산성 전망대

경북
탐구,

멋

2023년 7월 1일,
화본역에서 군위를 배웅합니다.

통일신라시대 군위현부터 명맥을 이어온 군위.
천혜의 자연과 삼국유사의 역사가 숨쉬는 군위.
경상북도 면적의 3%를 차지하며
언제나 우리 경북의 중심에 섰던 군위.

이제 안녕을 말해야 할 순간이지만
259만 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배웅합니다.





CONTENTS

목차

GYEONGSANGBUK-DO
MAGAZINE

2023 / SUMMER

VOL.434



발행처 경상북도

발행인 이철우

편집인 임대성

발행일 2023년 6월

문의처 경상북도 대변인실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4285

홈페이지 www.gb.go.kr

어게인 경북은 E-Book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게인 경북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상북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어게인 경북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햇살 가득 경북

- 02 경북탐구, 멋
찬란한 여름 햇살 아래 '군위'
- 06 다이내믹 경북
여름, 영양의 푸름을 즐기다
: 영양 핫플레이스 투어
- 10 미:식 경북
싱그럽고 달콤한 참외 예찬
: 성주 참외
- 12 시너지 여행
뜨거운 햇볕 너머
신비한 동굴로 떠나다
: 경북 동굴 사진 명소 3선
- 16 경북탐구, 삶
'촌캉스' 트렌드 / 경주 '감포 가자미마을'
- 18 오늘의 경북
경북의 선물 같은 경험을 담다
: SNS 서포터즈 인터뷰



미소 가득 경북

- 22 **4차산업 리더 경북**
경북의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는 '경북연구원'
: 경북연구원 유철균 원장 인터뷰
- 24 **농업대전환 경북**
경북 스마트팜의 미래를 짓다
: 예천 일민농원
- 26 **레인보우 경북**
외국인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스한 경북
: 경북 외국인 도민 인터뷰
- 28 **경북탐구, 혼**
안동대마의 무한한 가능성
: 안동 안동포마을

정성 가득 경북

- 30 **한눈에 보는 경북도정**
도민의 책 쉼터, K창 도서관
- 32 **화공 굿모닝 특강**
새벽 공부의 힘,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 34 **경북 도정 뉴스**
도정 소식
- 38 **경북 의정 뉴스**
의정 소식
- 42 **경북 메타버스 알림마당**
플랫폼 구축 / 체험공간 운영 / 인재 양성



음성변환바코드
어게인 경북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햇살 가득 경북
| 다이너믹 경북 |

여름, _____ 영양의 푸름을 즐기다

경북 영양의 재발견,
자연 속 풍요가 넘실대는 곳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엔 청량하고 싱그러운 풍경이 간절하다.
마음껏 걷고 탐닉하고 머물고 싶은 경북 영양. 이곳에서 찾은 짙은
푸름 속에서 시원한 휴식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다이너믹 경북
영양의 여름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주실마를 내 자리한 지훈문학과 전경



“피톤치드 가득한 순백의 세상”



영양 죽파리자작나무숲

자작나무숲에 들어서면 뽀뽀이 늘어선 새하얀 줄기가 눈앞을 시원하게 밝힌다. 1993년 영양 죽파리 일대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이래 이색적인 풍경으로 수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가 됐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도 이곳에서는 기분 좋게 반짝이며 흩어진다. 자작나무는 특히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서 몸과 마음을 산림 속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다. 잘 정비된 이정표를 따라 걷다 보면 주변을 감싸며 흐르는 개울물 소리까지 더해져 숲속 나들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한다.



주실마을

영양 주실마을은 청록과 시인으로 잘 알려진 조지훈 시인의 고향으로서 생가는 물론이며 문학관, 시 공원 등이 마련돼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산 아래 자리한 조용한 마을에는 낭만이 넘친다. 조지훈 시인이 태어난 ‘호은종택’을 비롯해 아름다운 고택들과 자연경관에 시선을 빼앗기고 나면 일상의 고충도 자취를 감추고 마음에 평온이 찾아든다. 널찍이 자리 잡은 ‘지훈문학관’에서는 시인의 생애와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언덕 위의 공원은 동상과 조형물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 볼거리로 가득하다.

🏠 경북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194-1

🕒 지훈문학관: 09:00~18:00(월요일 휴무)

“아름다운 마을에 깃든 문화의 숨결”



1. 주실마을 전경
2. 지훈문학관 내부
3. 고즈넉한 정취의 카페 연당림
4. 영양 특산물로 만든 디저트
5. 푸른 잔디가 매력적인 넓은 마당



“영양 특산물의 진가를 맛보다”

주실마을에서 차로 20여 분을 달리면 120년 넘는 한옥 고택을 개조해 만든 카페 연당림이 나타난다. 넓은 마당에 깔린 잔디가 깊어가는 여름처럼 짙은 초록빛을 선보이는 곳이다. 독립된 공간도 준비돼 있고 반려견 동반이 가능해 온 가족이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마루에 앉아 운치와 함께 즐기는 디저트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사과, 고추, 송이버섯, 산나물, 연잎 등 영양 특산물을 활용해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신선함은 물론 풍부한 맛을 자랑한다. 또한 바로 옆에 조선시대 3대 민간정원으로 꼽히는 ‘서석재’가 있어 함께 둘러보기에도 제격이다.

카페 연당림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서석지2길 4
☎ 0507-1344-8519

싱그럽고 달콤한

참외 예찬

후덥지근한 여름,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와 달콤한 향의 참외가 절실해지는 계절이다. 입안 가득 시원한 과즙이 퍼지면 앓은 곳이 그대로 피서지가 된다.

알고 먹어야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법, 섯노란 참외의 속을 들여다보자.

참외의 모든 것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C 함유량까지 높은 참외는 여름철 흘린 땀을 보충하고 기력을 채우는 데 제격인 여름 과일이다. 인도의 야생종에서 시작되어 긴 역사를 거치며 개량되어 온 참외는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때부터 오랜 세월 재배되어 왔다. <고려사> 등 다양한 역사서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참외 모양의 청자 유물도 남아 전해진다. 현재 우리가 즐겨 먹는 참외 품종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품종개량을 통해 단맛을 극대화한 것이다. 노란색이 진하고 껍질에 나타난 하얀 참외골이 선명하고 깊은 것을 골라야 하며, 밀봉하여 냉장 보관하면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성주는 참외 재배의 적지이며, 참외 산업의 유지와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Oriental Melon Salad

성주 참외

성주 참외는 깔끔한 외형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특유의 높은 당도로 미각을 충족시킨다. 가야산에서 내려온 깨끗한 지하수와 풍부한 햇빛이 더해진 최상의 재배환경으로 경북 성주는 ‘참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되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성주는 참외 재배의 적지이며, 참외 산업의 유지와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2012년에는 참외요리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는데 간식이나 후식뿐 아니라 다양한 반찬으로 즐기는 방법이 담겨 있다. 또한 성주군 대가면에 자리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신 품종·기술 연구를 선도한다. 저장성을 높이는 기술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진단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들이 경북 참외 농업에 더욱 활기를 더할 것이다.

초간단 레시피 새콤달콤 참외 샐러드(2인분)

재료 참외 1개, 올리브유 2스푼, 식초 1스푼, 레몬즙 1스푼, 설탕 1/2스푼, 설탕 소금 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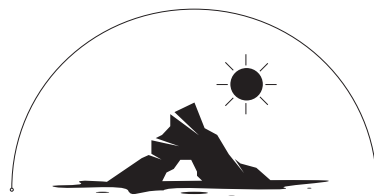
- ❶ 식초 또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참외를 껍질째 깨끗이 씻는다.
- ❷ 참외의 양 끝부분을 잘라낸다.
- ❸ 껍질을 세로 방향으로 깎고, 참외를 반으로 자른다.
- ❹ 손가락을 이용해 속(씨 부분)을 파내어 따로 모아둔다.
- ❺ 참외 모양을 유지하면서 엄지손톱 절반 정도의 두께로 얇게 썬다.
- ❻ [드레싱 만들기] 준비해 둔 참외의 속을 촘촘한 체에 걸러 즙을 짜낸다.
- ❼ [드레싱 만들기] 참외즙에 올리브유, 식초, 레몬즙, 설탕, 소금을 정량 넣고 잘 섞는다.
- ❽ 참외를 접시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드레싱을 듬뿍 뿌려 완성한다.

뜨거운 햇볕 너머
신비한 동굴로
떠나다 : 경북 동굴 사진
명소 3선

전촌옹굴 '단용굴'에서 바라본 감포 앞바다



바다로 산으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너도나도 자연으로 떠나는 계절이다. 경상북도 곳곳에 아름다운 휴양지가 많지만, 신비한 동굴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울여름을 더 색다른 경험으로 채워줄 것이다.



Gyeongsangbuk-do *Mysterious Caves*

한 폭의 그림이 된 감포 앞바다, 경주 전촌용굴



경주 전촌항 인근의 해식동굴이 최근 낭만적인 사진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전촌용굴은 사룡굴과 단용굴 두 곳이 있는데, 감포 바다와 맞닿아 오랜 세월을 거쳐 아름답게 조각되었다. ‘용’과 관련된 설화로 인해 이름이 붙었으며 사룡굴과 단용굴에는 각각 동서남북을 지키는 4마리의 용과, 감포 마을을 지키는 1마리의 용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동굴 너머 수평선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어 인생사진을 찍기 위한 방문객들로 붐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함께 더위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

경주 전촌용굴

- 📍 경북 경주시 감포읍 장진길 39
- 📱 #일출명소 #바위조각 #은하수촬영

여름 산행의 가슴 뻥 뚫리는 쾌감, 구미 도선굴



구미의 명산, 금오산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면 도선굴 사진 명소를 만날 수 있다. 정상이 해발 976m로 높은 곳이지만, 개운함을 만끽하기 위해 평일에도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신라시대 도선대사가 득도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도선굴'이라 불리게 됐으며, 거대한 암벽에 뚫린 큰 구멍이라는 뜻에서 '대혈'이라고도 불린다. 동굴 천장 아래서 바라보는 산세가 새파란 하늘과 함께 절경을 이루며, 동굴 바로 인근에 '대혜폭포'가 자리하고 있어 시원하게 뿜어지는 물줄기도 눈에 담을 수 있다.

구미 도선굴

- 📍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434-1
- 🕒 금오산 케이블카 : 09:00~17:30(왕복 요금 11,000원)

1. 구미 도선굴
2. 도선굴로 향하는 금오산 케이블카
3. 금오산 등산로 풍경
4. 울진 성류굴 입구 포토존
5. 울진 성류굴 내부





동굴 테라스에서 추억을 새기다, 울진 성류굴



울진 성류굴은 경북 도민의 이색 여행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외부 포토존이 인기의 중심에 섰다. 유유히 흐르는 왕피천 옆으로 동굴 형상을 재현한 터널 조형물이 입구부터 관람객을 환상 속으로 데려간다. 울퉁불퉁하게 깎인 기둥을 등지고 서면 해외 여행지에 온 듯 이국적인 모습이 저절로 연출된다. 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에는 자연 그대로 보존된 석회암 동굴의 신비함을 만끽해 보자. 아늑한 느낌의 조명 아래로 지하 세계를 가득 채운 종유석과 석순이 탄성을 자아낸다.

• 울진 성류굴 •

- 📍 경북 울진군 근남면 성류굴로 221
- 🕒 09:00~17:00(월요일 휴무)

Gyeongangbuk-do M y s t e r i o u s C a v e s

Info 알면 도움되는 여행 지식

여름 여행 필수품은?



- 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해줄 얼음물
- ②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벌레를 쫓아내기 위한 벌레퇴치제
- ③ 뜨거운 햇볕을 막아줄 챙이 넓은 모자
- ④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선글라스
- ⑤ 갑작스럽게 바뀌는 날씨에 대비한 우산 및 우비



석회동굴 바로 알기



- 종유석: 동굴의 천장에 고드름처럼 매달려 점차 아래로 자라는 석회질 물질의 기둥이다.
- 석 순: 동굴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 남아있는 광물질이 침전되어 겹겹이 쌓이면서 생기는 형태다.
- 석 주: 위로 자라는 석순과 아래로 내려오는 종유석이 맞닿으면서 수직으로 뻗은 원기둥 형태. 시간이 흐르면서 기둥이 더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제공: 문화재청



청년들의 손길이 더해진 바닷가 촌캉스 명소, 감포 가자미마을

삭막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 가면 자연 그대로의 정취를 느끼며 잔잔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경상북도에는 ‘촌캉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그중에서도 경주시 감포읍에서는 바닷가 촌캉스로 특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청년들의 재치를 통해 한적한 마을에서 ‘가자미마을’로 새 옷을 입은 곳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걸음걸음마다 소박한 낭만을 마주할 수 있는 곳, 감포를 직접 걸어보았다.

해국길에서 만난 눈부신 골목 풍경

처음으로 향한 곳은 감포에서 가장 유명한 골목인 해국길이다. 해국길은 감포공설시장 건너편에서 시작된다. 골목 벽마다 그려진 해국을 따라 걷다 보면 커다란 해국이 그려진 계단도 나오고, 옛 일 본식 가옥도 나오고,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우물도 나온다. 감포에서 해국은 훌륭한 가이드다. 해국이 안내하는 대로 걷기만 해도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을 마주할 수 있으니 말이다.



오랜 시간을 그대로 품다, 카페 1925감포

1925년에 지어진 목욕탕을 개조해 만든 '1925감포'는 카페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지역청년기업 '마카모디'와 지역주민단체 '함께 가는길'이 지역문화에 지속성과 확장성을 더하기 위해 만들었다. 1925감포에서는 눈과 입이 즐거운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다양한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옛것 그대로의 공간에 현대적인 감성을 곁들여 탄생한 1925감포에서 감포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1. 가자미마을 전경
- 2~4. 카페 1925감포 내부
5. 해국길을 장식하는 벽화



청년기업
'마카모디'
허용규 이사

Mini Interview

촌캉스란?



'시골(村)'과 '바캉스'의 합성어인 촌캉스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즐기는 바캉스다.



Q1. 마카모디는 어떤 일을 하나요?

A1. 마카모디는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 주거나 일자리 등을 해결해서 청년들이 시골에 살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곳 '가자미마을'은 경주 감포에 위치한 청년마을이에요.

Q2. 마을에서 꼭 들려야 하는 곳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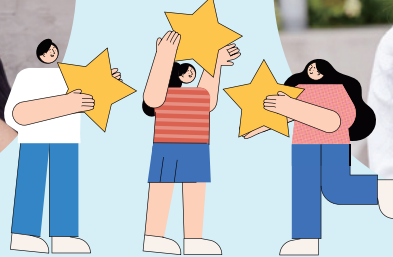
A2. 송대말 등대에 꼭 가보세요. 송대말 등대 앞에 보면 요즘 SNS에서도 유명한 물놀이/스노클링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또 1925감포 쪽에 적산가옥이 많은데 그곳에 해국을 컨셉으로 골목이 조성돼 있어요. 구경하기 참 좋습니다.

SNS 서포터즈, 경북의 선물 같은 경험을 담다

경북의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알리는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는 새로운 시각으로 경북의 오늘을 조명하고 있다. 문화와 관광은 물론 일상 속 스쳐 지나기 쉬운 소식들을 알찬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2023 SNS 서포터즈 2인을 만나보았다.



우성현



이승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에 사는 우성현입니다. 만나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소 여행과 영상 찍기를 좋아해 지원하게 됐으며 영상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만들어가는 여행 크리에이터 이승아입니다. 경북 경산에 살고 있으며,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승아랑'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게인 경북〉 독자들에게 서포터즈를 소개해 주신다면?



2023 서포터즈는 일반 부문 50명, 영상 부문 20명으로 총 7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문은 월 2회, 영상 부문은 월 1회 경북 소식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업로드합니다.



내가 만든 대표 콘텐츠?



저는 최근 경북 군위군의 화본역을 찾아 취재하고 원고와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장소 선정부터 특히 신경 썼던 기억이 납니다. 촬영과 편집까지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물까지 잘 나와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경주 봄맛이 지역 명소를 취재한 게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현장에서만 담을 수 있는 꿀팁을 알차게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식블로그에 업로드되는 만큼 교통편, 이용요금 등도 꼼꼼히 기록했죠.

경상북도만의 특별한 매력?



경상북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가진 매력적인 곳이고, 오랜 전통과 역사까지 갖춘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행하기 좋은 풍경들과 맛있는 음식이 많은 곳이죠. 여행지로는 구미 금오산을 추천합니다. 등산은 물론 다양한 체험과 관광의 중심이죠.



저의 추천 여행지는 경주입니다. 계절별로 참 즐길 거리가 많아요.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는 핑크몰리, 겨울에는 스노우파크를 즐길 수 있죠. 또한 황리단길은 경주 한옥의 특색을 살린 맛집과 카페 덕분에 눈도 입도 즐겁게 힐링할 수 있어요.

평소 즐겨보는 콘텐츠나 영감을 얻는 매체가 있다면?



최대한 많은 매체를 참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유명 SNS 계정, 여행 유튜브 채널, 신문, 여행 관련 책 등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달라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SNS 서포터즈 활동과 “나의 꿈”



저는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서포터즈 활동 덕분에 촬영과 편집 실력을 꾸준히 키우고 있어요. 올해 활동이 끝나더라도 여행을 다니며 계속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다양한 숨은 관광지를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활동하며 올해 아쉬웠던 점을 보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다른 서포터즈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재밌고 유익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많은 분이 제가 만든 콘텐츠만으로 다른 검색 필요 없이 ‘완벽한’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는 영상 촬영에도 깊이 있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방법부터 떠나기까지의 꿀팁들을 가득 담아볼 계획이에요.





[영상으로 즐기는 울진의 여름]
울진 등기산 스카이워크



미소가득 경북

여름 바다의 역동적인 울림과 함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다운 풍경 속에
사소한 걱정까지 말끔히 씻겨나가면 그 자리에
태양 같은 열정이 다시 솟아납니다.

경북의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는 ‘경북연구원’

경북연구원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홍익관 204호

지난 6월 15일, 경북연구원이 공식 출범했다. 경북도청 본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경북연구원 유철균 원장은 ‘미래가치 창조의 중심 하이스트(Highest) 경북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챗봇 개발부터 문화재 디지털 복원까지 경북 4차산업의 미래에 큰 힘을 싣고 있는 경북연구원을 찾아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경북연구원, 경상북도 미래 전략의 중심

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의 산업과 미래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곳이다. 현안 연구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등이 있다. 경북연구원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통해 지방시대 완성을 견인하고자 한다.

2022년 8월 1일, 대구경북연구원 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유철균 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약을 강조하며 혁신에 앞장서 왔다. 특히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AI부터 빅데이터, 메타버스까지. 이 같은 기술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 잘 알아야 지방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

‘챗경북’으로 보는 인공지능의 미래

2023년 3월 7일, 경북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 ‘챗경북’이 출시됐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맞춤형’ AI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 작년 11월 30일부터 이미 챗봇 연구에 집중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챗GPT의 인공지능에 경상북도만의 인터페이스를 입힌 방식이며, ‘공공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다. 챗경북은 경상북도의 데이터에 특화돼 있으며 활용범위도 무궁무진하다. 먼저 기대되는 부분은 업무 효율화 측면이다. 문장 생성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연설문을 작성하는 등 서류 업무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게 도와준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비서’로 활용할 날이 머지않았다. 프로그램의 지속 개선에 힘쓰는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13억 개의 어절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지능화 시대의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



세계 최고의 지방정부 싱크탱크로 거듭날 경북연구원

경상북도는 지방정부 최초의 챗봇 개발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선언하며 지방의 어려움을 지식기술, 과학기술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북연구원이 있다. 유철균 원장은 ‘서라벌 DNA’를 강조하기도 했다. 변방이 아니라 수도라는 의식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은 80억 세계인이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신라왕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날을 앞당기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열성과 진심으로 국가전략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 경북 신도시의 활성화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며, 경북에 자리 잡은 기업과 상생 협력도 지속하고자 한다. 지역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이 점차 단단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고,
실패도 곧 자산입니다.
경북연구원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챗경북 접속

챗경북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 경북도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원하는 형식으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AI 챗봇, 챗경북입니다.
- 문서 작성과 자료 조사 등을 돕는 비서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지식을 주세요.
- 제이 서비스 기간 중에는 보안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대화에 동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주십시오.
- 챗경북은 자료 조사, 지시 정리, 보고서 작성,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책을 결정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챗경북이 드리는 모든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 주세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 개선에 대한 건의를 환영합니다. ChatGPT@gb.go.kr

GBI 경북연구원

경북형 인공지능 챗봇 ‘챗경북’ 사용 화면



김병학 이사



경북 스마트팜의 미래를 짓다

: 예천 일민농원

‘프릴아이스’, ‘버터헤드’ 등 이름부터 생소한 스마트팜 재배 작물이 편견을 깨고 소비자에게 친근히 다가가고 있다. 샐러드와 쌈채소부터, 햄버거 등 양식에 들어가는 재료까지 활용처도 무궁무진하다.



수확 작물을 손질하는 모습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한 일민농원은 경북 유일의 스마트팜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수직 농법의 무한한 가능성과 스마트팜 재배 작물의 우수한 품질·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2021년 건물 완공 후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작물 재배를 시작한 일민농원은 건축업계에서 안목을 갖고닥은 이준상 대표와 김병학 이사가 야심을 품고 만든 곳이다.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따라 작물 재배환경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직시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김병학 이사는 스마트팜 실현에 필수적인 건축에 대한 이해는 물론,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신념으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외국인 도민과 함께 만드는 따스한 경북

경상북도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도민들을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경상북도의 다채로운 모습도 함께 소개한다.

▶ 캄보디아에서 온 최혜진(커소피)

▶ 캄보디아어 통·번역지원사로 날개를 달다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최혜진 씨는 상주시 가족센터에서 14년째 캄보디아어 통·번역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2007년 결혼을 통해 이주한 이후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 이후 통·번역지원사가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이어졌다. 두 번의 시험을 치르고 양성 교육까지 마치고 나서야 마침내 2009년 7월, 정식 통·번역지원사로 인정받게 됐다. 2009년 당시 경상북도의 유일한 캄보디아어 통·번역지원사였기에 큰 의미가 있다. 캄보디아어의 경우 현재도 전국적으로 11명에 그칠 만큼 드물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통·번역지원사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서류 작성부터, 병원 진료를 위한 의사소통, 일상에서의 가족 상담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최혜진 씨는 많은 외국인 도민을 지원하며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됐고 사무직/선생님이라는 어린 시절의 꿈도 이뤘기 때문이다.



▶ 모두의 응원으로 성장하다

최혜진 씨는 이제 종종 한국인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유창한 한국어는 물론이며 표정이나 태도에 자연스러움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한 번은 통·번역지원을 위해 대전을 방문했는데 택시 기사와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내릴 때가 되어서야 혹시 외국인인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놀라워하는 택시 기사와 인사하며 그녀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과, 상주시 가족센터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에서 온 마크

산골의 고즈넉한 정취에 마음을 빼앗기다

경북 봉화에 살고 있는 마크 씨는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한국에서 유학 온 현재의 아내를 만나 한국으로 오게 됐다. 경기도 부천의 가톨릭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그는 시골 생활의 로망을 실현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귀농을 선택했다.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기까지 고민도 컸지만, 경북 봉화에 먼저 터전을 잡은 아내의 친구 부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마크 씨는 경북 봉화의 아름다운 산세를 바라보며 직접 집을 지었다. 처음 짓는 집이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애정이 깃든 집을 올해 봄 완성했다. 넓은 대지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귀농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몸소 느끼는 중이다. 또한 농사도 시작했다. 도시에서도 주말농장으로 작물을 길러본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텃밭을 가꾸는 일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다. 몸을 쓰는 일이 많아 힘든 점도 있지만 그는 보람이 더 크다고 말한다.

마을의 매력에 흠뻑 빠지다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봉화에서의 생활이지만 마크 씨는 마을의 정을 듬뿍 느끼고 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마을 회관을 찾아 어버이날 행사를 함께 즐겼다. 모두 정겹게 맞아주셨고 이날 마을 어르신에게 백자 도자기를 선물 받기도 했다. 이사 초기에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할 때 경상북도 특유의 거센 억양으로 인해 불친절하다는 오해도 했지만 금세 익숙해졌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따스한 인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



United Kingdom



미소 가득 경북
| 경북탐구, 훈 |

대마산업 1번지, 경북

안동포마을에서 찾은 대마의 무한한 가능성

우리에게 익숙한 '삼베'는 대마 줄기의 껍질을 이용해 만든 천연섬유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농업의 일부였던 대마 재배의 이모저모와, 변화하는 대마 산업의 현재를 함께 알아본다.

베 짜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 안동포마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 자리한 안동포마을은 우리 선조의 훈이 담긴 '안동포'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곳이다. 안동포는 신라시대에는 화랑도의 옷감으로 쓰였고, 조선시대에는 최상급 진상품이었으며 현대에도 수의로 널리 쓰일 만큼 우리에게 친숙하다. 안동포마을은 대마가 자라기에 최적의 지질과 기후 조건을 갖춰 꾸준히 안동포의 명맥을 잇고 있다.

이곳의 안동포전시관을 찾으면 안동포만의 고유한 우수성과 오랜 전통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관, 시연장, 체험관에서 생생한 제작 모습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안동대마의 색다른 변신

① 바이오산업의 희망이 되다

안동대마는 이제 옷감을 넘여 다채로운 변화의 중심에 섰다. 안동시가 바이오 헴프산업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관 유치 및 행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래 안동은 국내 유일의 대마 재배단지를 관리하며 의료용 대마 개발로 생명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 대마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의 양적 성장이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안동포타운
박홍철 국장



Mini Interview

Q1. 안동포타운을 소개해 주세요.

A1. 질 좋은 삼베가 많이 생산되는 금소마을에 2007년 전시관이 준공되었고, 이후 교육 및 제품 생산을 위한 '빛타래 길쌈마을' 건물까지 더해져 알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Q2. 다른 지역 삼베와 달리 '안동포'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A2. '생냉이'라 하여 대마 줄기의 겉껍질을 벗겨내고 속껍질만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최근까지도 삼베 짜기 활동이 그대로 남아 있죠.

Q3. 방문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체험이 있다면?

A3. 양말목 직조 체험과 베틀 체험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헴프씨드(대마의 씨앗) 오일을 이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② 안동대마밭에 머문 예술가, 김국희 작가의 시선

지난 4월 경북도서관에서 진행된 레지던시 연계 전시 'Hello, StOranger'는 안동 대마밭에 머물며 영감을 얻은 작가 11인의 작품이 초대, 전시되었다. '활동형 예술 작업'을 진행 중인 김국희 작가는 올해, 직접 대마 농사를 지으며 예술과 삶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농부와 대화하고,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배치'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었고, 대마밭에서 머문 시간을 담은 작품과 전시를 완성했다. 김국희 작가는 앞으로도 농사, 치유, 예술을 키워드로 청년 작가와 농장 사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연결할 예정이다. 올해 직접 짓는 대마 농사와, 그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생태 예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에 지원을 보낸다.





도민을 위한 책 쉼터, 경북도청 도서관 'K창'

책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의 원천이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대여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책을 접할 수 있는 경로는 많다. 하지만 범람하는 영상 콘텐츠에 밀려 독서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북도청 도서관 'K창'은 이러한 세태 속에서 도민을 위한 책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 숙직 공간을 책으로 채우다

작년 12월 27일, 경북도청 안민관 1층 로비에 서 경북도청 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K창'은 과거 경북도청의 숙직 공간에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당직실을 없애고 홍익관(복지관) 별관에 있던 내부 직원용 행정자료실(문연각)을 이전·확장해 조성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개청 이래 50여 년간 지속된 숙직제도를 과감히 폐지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숙직 공간을 독서 쉼터로 탈바꿈한 사례는 전국 최초이기에 더욱 뜻깊다. 이곳에서 도민들과 직원들은 책을 마음껏 빌려 독서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 수 있다.

☑ 책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연구중심 도정, 지식축적의 리더 경북’을 상징하기 위해 기획된 K창은 무려 2만여 권의 일반도서를 소장하고 있어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4차산업 추천도서, 아동문학상 및 노벨문학상 추천도서, 세대별 추천도서, 영호남 향토 문인 도서, 여행 전문도서, 독도 특별기획 등 다채로운 북큐레이션을

제공한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발견할 수 있는 웅장한 서가는 천장까지 높게 뻗어있어, 방문하는 누구나 책에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직원뿐 아니라 도민이라면 언제든지 1층의 메타버스 체험존 옆 ‘K창 운영팀’으로 방문해 회원 가입을 하고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 더 안락하게, 더 편리하게 즐기다

‘K창’이라는 명칭의 ‘창’은 창조의 ‘창’, 창문의 ‘창’, 창고의 ‘창’으로 세 가지의 뜻을 모두 지니고 있다. 첫째는 책을 통해 창조한다는 의미이며, 둘째는 창 너머의 비전을 본다는 의미, 셋째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지식창고라는 의미다. K창은 경북도청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으로 탄생한 만큼 재배치 수준을 넘어 공간의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유로운 독서뿐 아니라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며, 답답하게 막힌 공간 대신 탁 트인 광장 같은 환경에서 생각의 넓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다. 두 군데 비치된 터치 스크린모니터를 이용해 셀프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췄으며 키오스크로 원하는 전자책을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아 즐길 수도 있다.



대출·반납 안내

- 대상: 도민 및 직원
 - 대출권수: 종이책(도민 1권 / 직원 2권), 전자책(3권)
 - 대출기간: 종이책(도민 90일 / 직원 30일), 전자책(7일)
 - 대출방법: 셀프대출반납기 이용 또는 K창 운영팀 방문
- ※ 회원가입 시 발급한 모바일회원증 이용





새벽 공부의 힘,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매주 화요일, 경북도청의 새벽을 깨우는 화공 특강이 열린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과
토론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227회째(23.06.27) 진행 중인 특강 중
명강연을 담아 소개한다.

화공 굿모닝 특강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화요일에 공부하자'란 의미를 담아 열고 있는 특강이다.
매주 화요일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경북도청 청사에서 진행되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가와 함께한다. 경제·일자리, 4차 산업혁명, 문화, 관광,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로
채워져 도청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공부 모임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 변해야 산다. 도청부터 변해야 한다.
변하려면 공부해야 한다. ”





Class 1

지역혁신과 대학 연구소의 역할

김현덕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산학협력은 대학의 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으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또한 최근 대학과 관련된 재정 지원 정책을 지자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논의되는 중이다. 지자체와 대학(대학 내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 교육을 혁신하고 혁신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다.

대학 연구소는 대학 내 학과와는 별도로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화된 연구단위로, 출연기관이나 산업체 연구소와 기존 대학 연구시스템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교육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 연구소의 차별점은 교수와 대학원생, 선임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조금 더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3D 졸업앨범(졸업생들의 얼굴을 3D프린터로 제작한 앨범)처럼 대학 연구소만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출해낸 성과물 등이 그것이다. 지역에 특화된 대학 연구소의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전통적인 관점을 버리고 대학 연구소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대학 연구소에 기대해 본다.



Class 2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민정책 방향

강동관

전)이민정책연구원 원장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와 노동력 감소, 지역인구 소멸 등 나라 전반에 걸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체계적인 이민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출산율이나 사망률은 정책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인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이민자 유입정책이 남는다. 인구 감소는 산업별로 노동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경쟁력 도모를 위하여 이민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민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입, 사회통합, 이민정책추진 거버넌스 3가지 구성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민정책은 ①누가, 누구를, 왜,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유입), ②데려온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사회통합), ③이를 위한 행정 조직과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 과정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유입하되, 국내 노동시장 보호가 고려돼야 한다. 또한 유입된 이민자와 공존 및 공생을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민자와 함께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편협한 사고와 태도를 버려야 한다.



도정소식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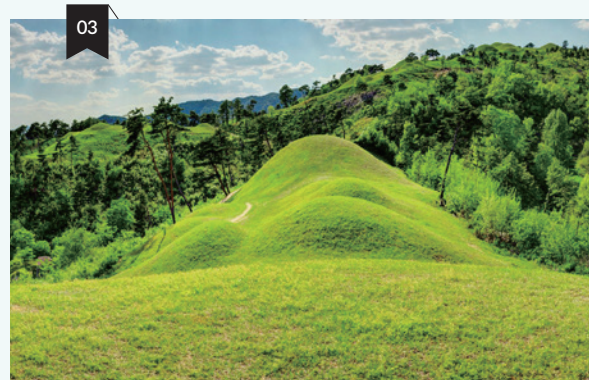
01 디지털 대전환! 대한민국 최초 인공지능(AI) 경북도지사 대국민 보고

경상북도는 5월 3일, '디지털 세상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이철우 도지사가 설명하고, 인간 이철우가 답하는 방식으로 발표해 디지털 중심 도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02 경상북도 지방정원 1호 '경북천년숲정원' 개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4월 24일, 연구원 내에 조성한 경상북도 지방정원 1호인 '경북천년숲정원'의 개원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정원실습장, 천연기념물 특화숲 등 테마정원을 조성하고 시민정원사, 작가정원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해 도민과 교감할 예정이다.



03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포함한 7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5월 12일, 경상북도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이 포함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9월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도정소식 NEWS



04 대구·경북의 명산 ‘팔공산’ ... 23번째 국립공원 승격!

경상북도는 5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팔공산은 2016년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독립공원 지정(1980년 5월)으로부터는 43년 만에,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05 경상북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그린다!

경상북도는 3월 16일 경주 하이코(HICO)에서 이철우 도지사, 울진군수 및 원자력 유관기관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경상북도의 미래 원자력산업 구상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06 구글(Google) 클라우드, 경상북도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인재 길러낸다

경상북도는 4월 18일,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와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안동대에 인공지능(AI) 진흥센터를 설치하고, 1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정소식 NEWS



경상북도, 전국 최초 사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모델 공개!

경상북도는 5월 9일,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에 1ha 규모로 시범 조성된 '전국 최초 사과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모델을 공개했다. 데이터 센터와 과원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생육정보, 기상데이터, 병해충자료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수집·분석·가공된다.



경북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성공 다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6월 2일 구미 도개면 샘물영농조합법인에서 도·시군 관계관과 들녘특구 참여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성공 다짐 결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구 지정을 알리는 현판이 수여됐다.



지방시대 이철우표 청년정책 메이커, 『경북 청년의회』 출범!

경상북도는 6월 9일 오후 2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 다목적홀에서 『제1기 경북 청년의회』출범식을 개최하고, 청년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뜻을 올렸다. 청년의회는 청년정책 발굴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자문단이다.



도정소식 NEWS



‘칠곡 매원마을’ 전국 최초 마을단위 국가등록문화재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경상북도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한 칠곡 매원마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6월 15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했다. 칠곡 매원마을은 다른 영남지방의 동족마을과 구별되는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적의 역사 ‘새마을운동’, 세계기록유산등재 10주년 기념식 개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새마을회는 6월 19일 구미북합스포츠타센터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새마을 캐리커처인 ‘새벽이와 마을이’가 최초 공개되기도 했다.



경북-인도 문화예술교류의 장 ‘한(韓) Art Road’ 성황리 개최

경상북도는 지난 5월 23일 17시(인도 현지 시각)에 인도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인 뉴델리 까마니 극장(Kamani Auditorium)에서 객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한(韓) Art Road’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정소식 NEWS

01



도의회·시군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경상북도의회는 4월 6~7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도의회 및 23개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문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열었으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02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4월 25일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행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03



경북도의회, 영호남 화합·상생·성장의 길 열었다

경상북도의회는 4월 27일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일원에서 전남도의회와 2023년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과 전남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의정소식 NEWS



2023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5월 1일, 2023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 외 5개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6건의 현안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했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배한철 의장은 5월 1일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5월 9일 제1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대 예산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 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부위원장에 김홍구 도의원을 선출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문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재정분석 지원을 하게 된다.



의정소식 NEWS



농어촌청년정책세미나 울릉군에서 성료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5월 18일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회의실에서 ‘농어촌청년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소속 도의원과 도청 청년정책과, 울릉군청 관련 부서, 울릉군 청년 12명 등이 참석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월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고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지방소멸 대책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학생 신체적·정신적 차이 고려한 소방안전 매뉴얼 연구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는 6월 7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 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를 오는 8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소식 NEWS



경상북도의회, 2023년 농촌일손돕기에 ‘앞장’

경상북도의회는 6월 7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30여 명이 문경시 산북면 소재 과수원 (사과)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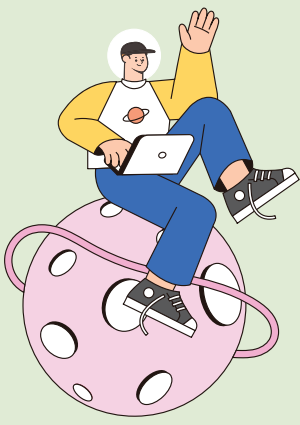
직원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도의회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법제 역량 향상을 위한 『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6월 8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강사진은 실무 경험이 많은 법제처 전문가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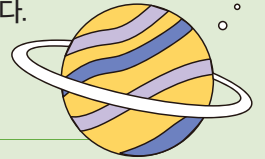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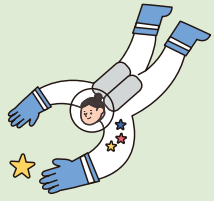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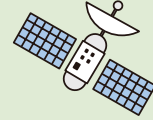


울릉도 안용복기념관에서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6월 12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울릉군 현지 안용복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37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정성 가득 경북
| 경북 메타버스 알림마당 |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주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는 메타버스 정책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대표 지자체로서 멈춤 없이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플랫폼 구축부터 체험공간 운영, 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현장을 살펴본다.



경상북도 메타버스 체험존



검색으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통합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정책에 날개를 달다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메타포트' 구축

'메타포트'란 경상북도가 전 분야의 메타버스 융합 및 확산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30년 완공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메인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있다. 면세점, 정책홍보, 컨퍼런스, 관광, NFT,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의 융합을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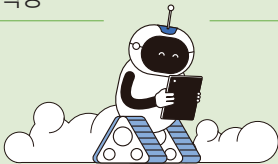
2023

컨퍼런스, 관광 등
플랫폼 확장



2024

전시관NFT, 교육 등
플랫폼 정착



3 전문교육으로 대학과 기업의 상생을 응원하다
경북형 인재양성-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운영

경상북도는 지역 대학생에게 필요한 메타버스 분야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디지털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업과 학생을 연결해 취업 사다리 역할을 수행 중인 것이다. 도내 포항공대, 금오공대, 안동대, 영남대를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메타버스 교육 및 취업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각종 행사(취창업 세미나, 컨퍼런스 등)도 열어 열띤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2 도민을 위한 마법 같은 상상의 공간
무한 창의공간 메타버스 XR 체험존 운영

경상북도는 지자체 최초로 개방형 메타버스 체험 공간 '메타버스 XR 체험존'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경북도청 안민관 1층에 개관한 이곳은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메타버스를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공간 구성]

MR미디어아트존

AR(증강현실)
글라스를 착용하고
경북의 미래
메타버스 방향
시청

XR메타버스체험존

영상과 체험자
간의 실감 나는
쌍방향 소통과
교감 경험

아바타 포토존

기념촬영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아바타 확인



메타버스 체험 모습



메타버스 수업(포항공대)





DIY 컬러링 캘린더 이벤트

01

나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색칠하세요.

02

점선을 따라 접고 붙이면
하나뿐인 캘린더가 완성됩니다.

03

완성한 작품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주세요.

04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송해 주세요.

경품 발송을 위해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참여 이메일 _ event@storypark.co.kr
방법 문자 _ 010-6690-1770

우수작으로 뽑으신 10분께는
1만 원 상당의 디저트 쿠폰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7월 3일(월) ~ 8월 28일(월)

당첨자 발표 9월 1일(금)

❶ '어게인 경북'을 읽고 난 소감?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❷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무엇입니까?

❸ '어게인 경북'에서 보유했으면 하는 점은?

☐ 기사 내용 ☐ 편집·디자인 ☐ 부수 확대·배부 방식 ☐ 종이 질·크기 ☐ 기타()

❹ 나만 알기 아까운 내 고장의 맛과 멋을 추천해 주세요.

❺ '어게인 경북'을 접하게 된 사연(장소)은?

☐ 관공서 방문 ☐ 지인 ☐ 홈페이지 ☐ 기타()

www.gb.go.kr

2023 Summer Vol.434 Gyeongsangbuk-do Magazine

도정홍보지 '어게인 경북'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더 좋은 도정홍보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게인
경북



독자 설문

[2가지 방법 중 택 1]

01

왼쪽 엽서에 항목별 내용을 작성하고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02

아래 QR코드로 접속하고
전송해 주세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풍성한 답례품은
덤으로!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혜택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



가입

준비물
PC, 휴대폰



기부하기



위택스 결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 위택스 사전가입 필수

기부방법 ②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준비물
신분증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답례품 선택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자원**으로 쓰여집니다.

